

제23회 운동주시문학상 수상작

당선작

이형초(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)

밤은 지나가겠지

멈추면 안 된대

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을 마주치면

회사를 그만두고 떠나는 기차 안에서

나는 트럭에 깔린 고라니 기사를 읽는다

승객은 모두 폭 꺼진 빵처럼 가라앉아 있고

컨베이어벨트에 올라간 반죽처럼 멍그러졌다는

선배 언니, 제빵 모자를 쓸 때마다 하던 말

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걷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

집과 공장을 드나들다가 방향을 잃은 밤

고라니가 가여워서 차를 세웠다면

뒤에 오는 차들이 줄줄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히거든

터널을 지났을 때

창밖에는 아몬드 가루처럼 눈발이 흩날리고

공장은 교통이 중요하다고

멈추지 말라고

기계를 멈추지 말라는 지시가

그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려왔다

나와 동료들은 벨트 사이 뒤틀린 반죽을 닦아냈고

트럭은 정확히 새벽 6시에 빵이 든 상자를 실어 날랐지

전국을 돌며 체인점에 박스를 던지고

덜컹거릴 때마다 폭 물러지는 빵은

언니의 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까

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만지면 빵은 부풀지 않아

언니는 버린 반죽을 푹푹 뭉치며

내게 마음부터 다잡으라고 말한 적 있는데

그녀가 만든 빵을 찢어서 호수에 던지면 빵은 젖지 않았다
질긴 빵을 씹어먹느라 마음이 다 바스러진 것 같았다
나 혼자 빠져나와서 미안해, 언니
그러자 언니가 내 어깨에 눈송이로 내려앉으며 말했다

밤은 지나가겠지
너는 돌아가야지

고라니의 뿔뿔한 털이 새벽까지 훑날리는 밤
나는 헤드라이트가 가리키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